

본 문: 삼하 19:16-43

제 목 : 다윗과 주변의 사람들

1. 다윗과 시므이(삼하 19:16-23)

1) 왕의 용서를 구한 시므이

시므이는 다윗 왕이 피신할 때 다윗 왕을 쫓아가며 저주와 욕설을 퍼 부은 자이다. 그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제일 먼저 왕을 맞이하러 나와 왕께 용서를 빌었다.

2) 아비새의 대답과 다윗의 결정

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자, 다윗 왕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.

2. 다윗과 므비보셋(삼하 19:24-30)

1) 므비보셋의 해명

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은 시바의 모함으로 다윗 왕의 피난길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(삼하 16:1-4), 다윗 왕이 자신을 잘 보살펴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변함 없다고 했다.

2) 다윗의 결정

다윗 왕은 시바에게 돌렸던 재산 중 절반을 므비보셋에게 돌려주라고 했으나, 므비보셋은 자신에게 그것이 필요 없다고 했다.

3. 다윗과 바르실래(삼하 19:31-39)

- 1) 바르실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전함
바르실래는 다윗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힘껏 도왔던 자이다(삼하 17:27-29). 다윗은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제안했다.
- 2) 바르실래의 답변
바르실래는 80세 고령으로 왕을 도운 것만으로 만족하고 어떤 보상도 원치 않았다. 대신 자신의 아들을 보내 왕을 시중들게 했다(왕상 2:7).
- 3) 다윗의 대답
다윗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바르실래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궁궐로 돌아갔다.

4. 남북의 갈등

다윗 왕이 귀환하게 되자 왕이 속한 유대 지파 사람과 이스라엘 10지파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났다.